석유 소비 국제유가 상승과 별개!

산자부, 2005년 1/4분기 3.4% 늘어 ... 휘발유·병커C유 증가 두드러져

국제유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데도 국내 석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2005년 1/4분기 석유 소비는 2004년 1/4분기에 비해 3.4% 증가한 2억744만배럴로 집계됐다.

2004년 석유 소비는 전체적으로 2003년보다 1.3% 감소했지만 2005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.

휘발유 소비가 1428만배럴로 전년동기대비 6.4% 증가했으며, 병커C유도 3166만배럴로 4.7% 늘었다. 아울러 나프타 소비는 6.5%, 프로판은 9.3% 증가했다.

반면, 등유는 7.3%, 경유는 2.8% 감소했다.

한진현 산업자원부 과장은 “휘발유 소비가 증가한 것은 경유자동차 세금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휘발유자동차 판매가 7% 늘었기 때문”이라고 설명했다.

1/4분기 동안 휘발유 평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358원으로 2004년 1/4분기에 비해 1.3% 상승했다.

병커C유 소비가 증가한 것은 2005년 1/4분기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1-4도 정도 낮아 가정·상업용 난방비가 늘어나고, 경기지역 일부 발전소의 연료가 LPG에서 병커C유로 전환됐기 때문이다.

<화학저널 2005/05/02>